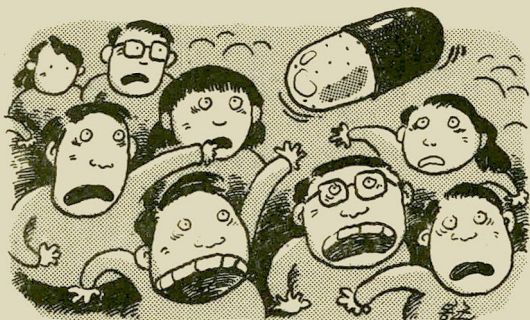


특정 약물의 소비 증가와 사회상황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후방에 남은 여성들을 위한 수면제가 다량으로 생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회 부조리가 증가할수록 신경계 약물의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도 마찬가지 예이다. 요즘 약국에는 불안증 상담자들의 발길이 부쩍 잦다. 특히 주부들이 많은데 그 원인의 대부분은 자녀 문제이다. “가슴이 뛰고 불안해서 죽겠어요. 우리 둘째가 또 집을 나갔어요.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창피해서 원...”

부모를 포함한 기성세대에게 요즘 청소년의 가출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의 하나다. 해마다 10만명 정도의 중·고교



신경안정제 찾는 부모들

생들이 집을 나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종류 이상의 부유층 청소년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왜 집을 나왔니?” “그냥요. 모든 게 싫고 허무해요.”

세번씩이나 가출했던 이웃집 학생의 대답은 ‘이유 모름’이다. 풍요한 환경에서 쾌락에 일찍 눈을 뜬 반면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갈등과 방황이 이미 어른들이 조언해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들의 방황 뒤에는 반드시 어른들의 문제가 깔려 있다. 언제나 으뜸이 될 것을 강요하는 ‘과잉경쟁의식’, 비정상적인 방법의 치부, 삐뚤어진 윤리 자세 등등 기성세대가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일탈을 자극하는 것이다.

신경안정제 한 알로 한순간 불안을 잊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다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부모가 먼저 맑은 정신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내 자녀의 고민을 껴안아야 한다. 내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뒤틀린 부분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 나서야 한다. ‘더불어 사는 밝은 세상’에서는 가출 청소년도 신경안정제도 필요가 없을 테니까.

최영해 / 수원 까치약국 약사